

〈수능 독서영역〉

수능 독서영역에 필요한 능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해력
2. 기출분석
3. 정보 정리능력

1. 독해력

글을 잘 읽고 잘 이해하는 능력. 수능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입니다. 수능 비문학의 ‘피지컬’ 적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뛰어나면 나머지 다른 무기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읽고 문제 풀면 다 맞거든요. 학교 다닐 때 꼭 한 반에 한명씩은 있는, 맨날 시간 겁나 남기고 옆드려서 자는데, 시험지에는 표시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많이 틀려봐야 한두개 틀리는 그런 친구들이 이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입니다.

이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글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활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글쓴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단, 이 문장은 아까 앞에 나온 그 내용들과 무슨 관련이 있으며 글 전체의 화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끊임없이 ‘그래서 니가 지금 하려는 말이 뭔데?’라고 생각해 가면서 글을 읽다 보면 발전하는 능력입니다. 공부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해야 독해력이 오릅니다.

2. 기출분석

독해력이 좋으면 사실 국어 공부에 대해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글 차분히 씩 읽고 나서 답 톡톡 고르면 맞으니깐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긴장되는 시험장, 촉박한 시간, 낯선 주제들과 어려운 용어들까지. 글을 평온하게 읽어 내려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들이 존재합니다. 기출분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수능은 출제 기준이 있는 시험입니다. 마구잡이로 출제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된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럼 역으로,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기출문제들을 귀납적으로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체계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이지 않을까요? 이걸 알아내면 훨씬 글을 읽을 때, 어느 부분이 평가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평가원이 좋아하고, 문제로 자주 출제하는 지문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글을 읽어내려 갈 때, 이 포인트들을 머릿속에 최대한 넣으려 노력하고, 그렇지 못했더라도 명시적인 표시를 하거나 잘 정리를 해 둔다면, 훨씬 더 쉽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3. 정보정리능력

폭탄같은 정보량.

대부분의 학생들이 비문학에서 좌절을 겪는 부분입니다. 화제를 잡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알겠는데, 그 말이 너무 양이 많고 어렵다.....! 새로운 정의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처음 보는 수식들과 관계식이 빼곡하게 지문에 들어차 있습니다. 차분히 이해해보려 해도 쉽지 않고, 뇌가 과열되는 느낌이 들고 사고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수능 국어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문을 잘 이해한다? 기출 분석의 요소를 완벽하게 적용한다?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맞추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 '찍신' 이 있다면, 공부 아등바등 할 필요도 없잖아요? 글 이해 하나도 못해도 답을 맞출 수 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맞죠. (물론 이런 방법은 없지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라도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눈알을 굴려본 결과, 답은 이것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요. 굉장히 국어 공부의 '정도'를 벗어난 것 같아 보이지만, 적어도 수능 국어에서는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것도 연습 충분하게 못하면 못 써먹어요!

다만, 공부할 때 비중을 각 능력별로 따진다면, 1번과 2번이 3번보다 좀 더 깊고 찌(?)하게 다루어져야 하긴 합니다. 3번은 어떻게 보면 특히 1번 능력과 좀 대척점에 있는 것인지를, 3번에 익숙해지게 되면 글을 이해하려는 생각을 소홀히 하게 되는데, 그래도 본질은, 기본은 글을 이해하는 것이니까요! 뇌가 녹아버리기 직전까지 글을 이해하고 분석해보려 노력합시다.

자, 수능 국어 고득점을 위해 필요한 능력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글을 최대한 이해하려 노력하는데, 이때 미리 기출분석을 통해 습득해둔 요소들을 이용해 준다. 그러다 뇌의 정보처리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면, 이제는 '손'과 '눈'을 써서 정보를 잘 정리해 준 뒤 문제를 풀어내려 노력한다.' 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원론적인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살떨리는 수험장까지 생각해서, 좀 더 '리얼하게'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잡다한 무기들보단 날선 명검 하나를-

전 수능의 긴장감을 세 번 경험했습니다. 삼수를 한 건 아니구요, 재수긴 한데 제가 현역때가 18수능이었습니다. 맞아요..... 지진나서 수능 미뤄진 그 세대입니다 제가.

수능 전날의 긴장감. 잘 안다고 생각한 것들도 정리하고 침대에 누우면 아리까리한 것 같아서 다시 일어나서 책 들춰보고. 머리는 점점 하얗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수능 당일엔 더합니다. 그 기분나쁘게 차갑고 축축한 공기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능력이 있구요, 건조함에 피

부 갈라질 만큼 빵빵 나오는 히터 공기와 ‘이 시험으로 내 대학이, 내 인생이 결정된다.’ 라는 생각들은 내가 정말 본능에 충실해서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수능장에 들어가서 국어 지문을 풀다 보면, 신기하게도 내가 수업에서 주워들었던 소소한 꿀팁들(도형같은걸로 표시하면서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된다, 마지막 문단만 읽고 풀어도 문제 한두개는 맞춘다 등등.....)이 하나도 기억이 안나고,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글 읽는 방식대로 회귀하게 됩니다. 즉, 방법론을 아무리 많이 익혀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의 틀을 완성해서, 우리 몸에 익도록 철저하게 체화하고, 수능 시험장에서도 그 틀대로 글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글을 읽는 ‘틀’이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 글을 대했을 때 우리가 취할 최소한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 과학 기술 지문에서는 그림이 나오면 그림 위주로 글을 읽어 봐야겠다. 비례/수식이 나오면 우선 따로 체크를 해 두어야겠다. 철학 지문에서 주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미리 체크를 해 두어야 겠다.’ 등의 분석적인 태도부터, ‘나는 화작문을 읽을 때 급해지는 습관이 있으니 화작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지 위쪽에 크게 천천히! 라고 쓰고 시작해야겠다. (이건 제가 실제로 썼던 방법입니다.) 난 국어 지문을 풀 때 이런 순서가 가장 효과가 좋았으니까 이 순서대로 해야겠다.’ 등의 자신만의 루틴까지. 이걸 요소들을 발견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고, 이점이 있다면 강화하는 일을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충분히 해 두고, 시험장에서는 그대로 실행만 해 두면 됩니다. (시험장은 연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발휘하는 자리입니다! 시험장에서는 깨달음과 연구가 있으면 안됩니다!!)

읽으면서도 느꼈겠지만, 이런 틀을 갖추기 위해선 많은 공부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출문제에 관련해서요.) 그리고 또 느꼈겠지만, 단순히 양만 채우는, 반복만 하는 공부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기출만 풀었던 거 또 풀고, 당연히 두 번째 푸는 거니까 침보다 많이 맞추고 시간 줄어드는게 당연한 건데 실력 늘었다고 착각하고, 그러고는 답 다 외웠다고 기출 버리고 이상한 사설 지문 떠도는 사람들. 할말하않.....) 즉, ‘생각하며 기출을 반복하는 유의미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몇 번 기출을 들렸고, 기출문제집을 몇 권을 반복했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하면서, 분석을 같이 하면서 기출문제를 한 번 돌리는 것이, 단순히 기출문제를 10번 반복한 것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그러고는 10번 반복한 불쌍한 친구들은 한 번 돌리고 성적이 오른 친구들을 보고 좌절하며 외치죠. 국어는 머리빨 재능충 운빨망겜 과목이라면서요.) 물론 생각하면서 공부하기만 한다면, 기출 반복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풀어보고 많이 틀려보고, 많이 생각해보면서 공부를 해야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지, 어느 부분이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지가 보이거든요. 흔히들 말하는 ‘국어는 독학이 가장 좋다’는 말은 여기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험생에게 시간이 별로 없기에, 미리 기출을 분석해놓은 사람들이 만든 ‘기출의 중요 포인트들’을 미리 학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강/교재/칼럼 등을 통해서요. 지금부터 설명할 것들 또한 제가 기출을 분석하면서 정리한 ‘집중해서 읽어야 할 부분’ 들입니다.